

Better Days

한국은 지난 40년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긴 노동 시간 끝에 주어지는 짧은 휴가다. 먼 곳으로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힘든 사람들은 긴 여행 대신에 주로 도시 주변에 머물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다양한 여가공간과 사람들의 모습을 한발 물러서서 관찰하고 천천히 프레임링을 하며 복잡한 상황이 균형을 이루기를 기다린다. 이 작업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빠른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오랜 유대감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함께 즐기며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Better Days

Korea has developed rapidly over 40 years, which caused a lot of social consequences. One of which is long working hours with a very short period of break. During holidays, Koreans try their best to enjoy it, but due to lack of time to travel, they spend time mostly around the city.

I take a step back and observe various leisure spaces and people, slowly frame them, and wait for complex situations to balance. Koreans "fast pace lifestyle", and "community-based trust", revealed in this work show Koreans adapting to any situation, enjoying themselves together, and striving for "coexistence".